

광주 교육감 후보 학생들이 검증한다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전국 최초 내일 초청 토론회 장휘국·이정선·최영태 참석...학생·시민 100여명 참여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주최하는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토론회이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장휘국·이정선·최영태 세 후보자가 모두 토론회에 참여한다. 청소년 패널 등은 교육감 후보자들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는 등 후보자 검증시간도 마련된다.

‘6·13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는 “오는 6일 오후 4시 광주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옛 광주학생회관)에서 광주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해온 ‘6·13지

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 열리는 청소년 초청 교육감 토론회는 전국 최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진행 시간은 2시간, 청소년 등 시민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행사는 개회식, 후보자 소개, 청소년 패널 질의응답, 청소년 청중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문서희·이소은양과 류재열군 등 청소년 패널은 장휘국·이정선·최영태 후보에게 직접 광주학생들을 대신해 질문을 한다. 청소년 청중 또한 즉석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청소년들은 지난 한달여간 각 후보자들

이 내놓은 공약, 후보자 이력, 현 교육정책 등을 검토해 질문 등 토론회 준비를 해왔다. 또한 학생들의 희망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순회, 설문조사를 거쳐 6개의 핵심 질문을 선정했다.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 측이 ‘성실한 답변을 위해 미리 질문지를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 있었지만 손을 저었다고 한다. 각 후보자들의 광주교육에 대한 열정, 이해도, 사전 준비 정도 등을 가감없이 보기 위해 토론회 전에 질문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학생들은 본격 토론회에 앞서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키워드 조사결과를 알리며, “청소년이 바라는 광주교육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세 후보자 중 탄생하게 될 광주시교육감에게 토론회를 계기로 학생, 청소년들이 원하는 광주 교육이 무엇

인지를 전달하는 시간이다.

후보자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가 끝나면 청소년들은 각 후보자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뜻깊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세 후보자 모두에게 참 스승이 되어달라는 의미로 준비했다는 게 학생들 설명이다.

청소년토론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박경록군은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지만 정작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참여권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군은 이어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등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지향적인 교육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안전점검 생활화 합시다” 광주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 등이 4일 양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교통 지옥’ 동명동 일대 일방로 지정 광주 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소

동구, 아이플렉스·ACC 외곽주차장 인접도로 2곳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된다.

동구는 “불법주·정차가 많은 동명동 일부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구간은 광주아이플렉스(I-PLEX) 앞 도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외곽주차장 인접도로 등 2곳이다.

서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 광주-PLEX 앞 왕복2차선 장동로는 ‘좋은식당’에서 ‘커피에담’ 방향으로 185m구간이 일방로로 지정됐다. ACC외곽주차장과 인접한 제봉로98번길도 서석초 방향으로만 일방 진입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야간과 주말에 물리적으

■ 동명동 신규 일방통행로

로 주·정차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일방로를 지정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광주지역 교통사고는 28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35건에 비해 5.1% 감소했다.

사망자는 30명, 부상자는 45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46명, 부상 4814명에 비해 각각 46.4%, 5.4% 줄었다.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도 지난해 1~5월 23명에서 올해 6명으로 73.9%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이었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한 명도 없었다.

광주경찰청은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해 배치하고 이동식 과속단속을 시행하는 등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북구 중흥동 등 23곳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친화형 도로 환경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확대·시행하는 한편 사고다발 일대에 교통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장승명 교통안전계장은 “교통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시민을 위한 교통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4
달맞이 10:49

서늘한 오후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광주	비온뒤맑	19/23	보성	가뭇그리고비	18/22
목포	가뭇그리고비	19/22	순천	가뭇그리고비	19/23
여수	비온뒤맑	18/21	영광	비온뒤맑	18/24
나주	비온뒤맑	18/23	진도	비온뒤맑	18/23
완도	비온뒤맑	19/22	전주	비온뒤맑	19/26
구례	비온뒤맑	18/23	군산	구름맑음	18/26
강진	비온뒤맑	19/23	남원	구름맑음	18/23
해남	비온뒤맑	18/22	홍산도	비온뒤맑	16/21
장성	비온뒤맑	18/2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북동~동	0.5
남부 먼바다	동~남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먼바다(대)	동~남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먼바다(세)	동~남동	1.0~2.0	북동~동	1.0~2.5

◇ 불매

목표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1:40	06:12	23:30	18:17
	23:30	18:17	07:13	00:48
목포	11:40	06:12	23:30	18:17
	23:30	18:17	07:13	00:48

◇ 주간 날씨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	☀	☀	☀	☀	☀	☀
18/29	18/28	18/29	18/29	18/28	17/27	17/28

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 국가행사 가능성

보훈청 “대통령령 개정 남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매년 11월 3일)가 이른바 올해부터 국가 행사로 치러진다.

광주지방보훈청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주관 기관을 교육부에서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 실무 협의는 마무리 됐으며, 대통령령 개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는 그동안 교육부 주관으로 열리면서 ‘광주만의 행사’로만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은 현재 대통령령 제28624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부 주관 기념식으로 지정돼 있으며, 광주보훈청은 국가 행사로 승격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국무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김주용 광주보훈청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은 5·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 광주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광주지방보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유공자 발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31사단 38대 사단장 소영민 소장 취임

육군 제31보병사단 제38대 사단장예 소영민 소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31사단 사령부 대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 신임 사단장은 “적과 싸워 이기는 정예화된 부대를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중장부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소 사단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1988

년 학사 11기로 임관해 6사단 19연대장과 육군본부인력획득과장, 육군본부제대군인지원처장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